

## 세계 테니스계 판도 바꾼 19세 신성

세계 남자 테니스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19살의 스페인 청년 알카라스가 강자들을 줄줄이 꺾고 벌써 시즌 4승째를 기록하며 세계 테니스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10일 'SBS'에 따르면 2003년생으로 지난해 프로에 데뷔한 알카라스는 지난 8일 끝난 마드리드 마스터스 남자 단식에서 고국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이 대회에 출전한 상위 랭킹 1~3위(조코비치·츠베레프·나달)를 모조리 격파하고 이 대회 챔피언이 됐다.

알카라스는 지난달까지 3개 대회를 휩쓸더니, 마드리드 오픈 8강에서 그랜드슬램 최다 우승자인 나달을 꺾었고, 4강전에서 세계 1위 조코비치를 무너뜨린 데 이어 결승에서는 세계 3위 즈베레프를 1시간 2분 만에 제압하고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 세계 테니스계의 판도를 바꾼 19세 알카라스. 사진=shutterstock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과 조코비치를 연파한 선수는 알카라스가 처음이다.

지난해 마드리드 마스터스에 세계 120위로 출전했던 알카라스는 최근 세계 10위 이내의 선수들을 상대로 7연승을 거둔 알카라스는 단숨에 세계 6위로 뛰어올랐다.

엄청난 스피드와 순발력, 강력한 스트로크로 진기명기를

연출하며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알카라스는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일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위대한 선수들을 꺾고 정상에 오른 기쁨을 고향 팬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알카라스는 5월 16일 개막해 6월 5일 막을 내리는 프랑스 오픈에서 메이저 첫 우승에 도전한다.

## 우즈-미켈슨, 'PGA 챔피언십' 나란히 출전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켈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한다.



▲ 타이거 우즈(왼쪽), 필 미켈슨(오른쪽). 사진=shutterstock

난달 말 서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연습 라운드에 나서고, 출전 여부를 고민해왔다. 우즈는 PGA 챔피언십에서 1999년과 2000년, 2006년, 2007년 등 4차례 우승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은 리브 인터내셔널 시리즈 창설에 앞

장서다 인터뷰 실언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4개월 가량 자숙해왔던 미켈슨도 PGA 챔피언십 출전을 확정지었다.

미켈슨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도 나선다. 이번 대회엔 올 시즌 4승을 거두고 세계 1위에 올라있는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비롯해 온 랍(스페인), 조던 스피스(미국) 등 155명이 출전한다.

지난달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통해 1년 2개월여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우즈는 저울질 끝에 PGA 챔피언십 출전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즈는 지

## 손흥민, EPL 시즌 누적 파워랭킹 1위 등극



▲ 골을 넣고 기뻐하는 손흥민. 사진=shutterstock

한 시즌 정규리그 20골을 돌파한 손흥민(30·토트넘)이 시즌 누적 파워랭킹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전날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시즌 누적 파워랭킹에서 손흥민이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스카이스포츠의 파워랭킹은 선수들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느냐를 수치화한 순위다. EPL 최근 5경기를 바탕으로 득점, 도움, 차단, 태클 등 35개 부문의 활약을 평가한다. 이번에 발표된 순위는 올 시즌 전체 활약을 의미하는 시즌 누적 수치다.

손흥민은 7만1,587점을 기록, 7만1,295점을 달성한 살라에 앞서 이번 시즌 EPL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로 등극했다.

스카이스포츠 "살라가 거의 시즌 내내 시즌 순위에서 1위를 지켰지만 3경기를 남기고 손흥민이 그를 제치고 맨 위로 올라섰다." 면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페널티킥 없이 20골을 기록 중으로, 기대득점(xG·13.11)의 거의 두 배를 넣었다. 반면 살라는 자신의 기대득점(22.43)과 비슷한 22골을 넣었고 그 가운데 5골이 페널티킥"이라고 밝혔다. 필드골로만 따질 경우 손흥민이 살라보다 3골이 더 많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이탈리아 세리에A를 포함하고 있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20골 이상 넣은 선수는 11명이다. 이 중 필드골로만 골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